



함께 꿈꾸는 내일 KB Dream Wave 2030

KB국민은행이 'KB 드림 웨이브 2030'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진은 'KB 드림 웨이브 2030' 영상.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청소년·청년 꿈 위해...다 퍼주는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KB 드림 웨이브 2030'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 학습, 진로, 지원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과 청년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누적 수혜자 30만 명을 목표로 한다.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인 대표 프로그램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ESG 활동의 목적으로 기획했다. 4월 7일까지 KB국민은행 유튜브에서 'KB 드림 웨이브 2030' 영상을 시청하거나 Z세대 금융 플랫폼 리브네스트에서 하트 모아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조회수 1회와 하트 기부 1개를 각각 1000원으로 환산해 최대 1억 원까지 기부금을 적립한다. 적립된 기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공부방 리모델링과 노트북 등 학습용품 지원에 사용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KB아동센터 학습공간'도 눈에 띈다. 지역아동센터 내 유휴공간을 통합·분리해 학습공간을 조성한다. 또 학습공간에 청소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조절식 책상과 의자, 소방 감지기, 방염 벽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한다. 현재까지 총 135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 공간을 조성했으며, 올해 25개를 추가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4월 7일까지 지역아동센터 통합 홈페이지 나눔플러스-ON에서 신청 가능하다.

●KB라스쿨·KB인재양성 프로그램 주목
'KB 드림 웨이브 2030' 학습분야의 일환인 'KB라

스쿨'도 주목받고 있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글로벌 가정 학생과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선발해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장 단계별로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과정에서는 에듀테크 교육 기관과 협력해 전 과목의 교육 콘텐츠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제공하고, 담당 교사가 월 2회는 유선, 2회는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학습관리를 진행한다.

중학생 과정에서는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전 과목 강의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수강권과 태블릿PC를 제공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생 멘토의 학습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을 기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등학생 과정에서는 태블릿PC와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 질문에 즉시 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를 높였다. 매 교시 진행된 강의는 편집 후 녹화본으로 학생에게 제공돼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복습이 가능하다. 또 대학생 멘토와의 학습 멘토링과 학습관리, 내신관리 및 멘탈케어, 진학 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KB인재양성'도 인기다. 꿈이 있는 청년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청년은 전문가 멘토와 함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는다. 또 개인별로 성장지원금을 제공 받아 자격증 취득, 공모 대회 참여 등의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회사 측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멘토링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및 학습공백 해소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KB라스쿨' 발대식 기념 촬영 모습(위)과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KB아동센터 학습공간'.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말로 계좌 이체 등 450여 개 은행일 처리 신한은행 뱅킹앱 '솔' AI 음성뱅킹 서비스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 신한 솔(SOL)에서 '인공지능(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솔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업무 내용 음성 지시를 통해 메뉴 이동, 거래내역 조회, 계좌 이체, 대출 상품 안내, 다빈도 질문 등에 대한 설명 등 450여 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서비스·기능을 찾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구현했다. 챗봇(채팅로봇) 및 전화상담 2000만 건 중 유효데이터 8만 건을 분리하고, 고객 사용 단어들의 분석 데이터를 탑재한 '자연어 이해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음성·터치·키패드 등 여러 대화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회사 측은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대화형 AI로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든 고객 필요에 맞게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은행' 핵심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을 내놓았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하다.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에 최고 연 1.3% 우대금리를 적용해 12개월 기준 최고 연 5.65%, 24개월 기준 최고 연 5.75%, 36개월 기준 최고 연 5.85%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 금리는 급여클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연 0.5%p, 적립 원금 300만 원 이상 연 0.3%p, 입출금 통장 첫 신규 고객 연 0.3%p, 초대코드 제공 및 입력 고객 연 0.2%p를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하나은행,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생 모집

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4월 6일까지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 훈련 사업으로, 디지털과 금융의 융복합 시대를 이끌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기획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로 선정돼 금융권 실무 능력 함양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특화된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디지털 하나로' 1기 훈련을 선보인다.

디지털 하나는 금융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기획 등 2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비전공자 및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실무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꾸렸다.

지원 대상자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최초 신청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 및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전공과는 상관없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하나은행이 훈련비 전액을 부담해 교육생이 납부해야 할 자가 훈련비용이 없다. 또 하나은행 디지털·정보통신 현직 임직원과의 교류 프로그램, 인사 담당자 취업 컨설팅, 훈련기간 중 교육용 노트북 무상 대여 등을 제공한다.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 시, 채용 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1일(화) 음력: 2월 3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	피로율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르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횡재수가 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는 행동을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 웨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살펴라.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투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내일은 길한 날이다.

오늘의 날씨			21일(화)		
서울 0/10	인천 0/10	춘천 0/0	강릉 0/0	대전 20/20	전주 30/30
5 21	4 17	-1 21	9 20	5 22	7 22
광주 30/30	대구 30/30	부산 30/30	9 22	7 22	11 17
창원 30/30	제주 60/7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9 16	13 18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3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